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레 19:18)

十 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co.kr

마태복음 강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 (마 8:18-25)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1.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18절).

헬라어로 ‘오클로스’라고 하는 ‘무리’는 어떤 뚜렷한 목적을 알지 못한채 모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단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에만 관심이 있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거기에서는 어떤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할 성경적 도덕의식, 거룩의 기준, 빛과 소금의 삶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이 받을 복과 유익만 추구할 뿐입니다.

2. 성급하고 즉흥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19절).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최고의 학문을 익힌 권위 있는 학자들이요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백성들로부터 더 큰 존경을 받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충동적이고도 즉흥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3. 부르심에 머뭇거리는 사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21절).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사역의 시급성과 우선성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복음과 영혼구원의 사역은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긴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후에 주님은 복음 사역을 위해 따로 70인을 세우셨습니다(눅 10:1).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일에 우선권을 두고 헌신하는 따로 세운 일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 주님께서 따로 세운 70인의 일꾼들과 같이 온전한 헌신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들이 누렸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Life of Following Jesus (Matt. 8:18-25)

There are an uncountable amount of Christians in the world. Through this text Jesus categorizes Christians into three groups.

Firstly, it is a person who follows Jesus for seeking his own benefit.

“When Jesus saw the crowd around him, he gave orders to cross to the other side of lake” (v. 18).

The word, ‘crowd’ referred to ‘oklos’ in Geek means that people are together without knowing their purpose. In other words, upon hearing the rumor of Jesus, they came together to solve their own problem. They were never interested in who Jesus was but only themselves. When Christians come to church, if they are only interested in what God gives them, no matter how many people are together, they will never be able to obtain a holy change.

The biblical moral consciousness, the standard of holiness, and the life of light and salt that the modern Christians must have, gradually disappear without a trace. They only seek their immediate blessings and gains that they receive.

Secondly, it is a person who follows Jesus with his impatient and extempore mind.

“Then a teacher of the law came to him and said, ‘Teacher,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v. 19).

It was a teacher of the law who transcribed the Bible. They were a highly educated and authoritative scholar and respected by the people. Nevertheless, the reason why they wanted to follow Jesus was their impulsive and extempore thinking of which they would receive more respect by people and enjoy something much m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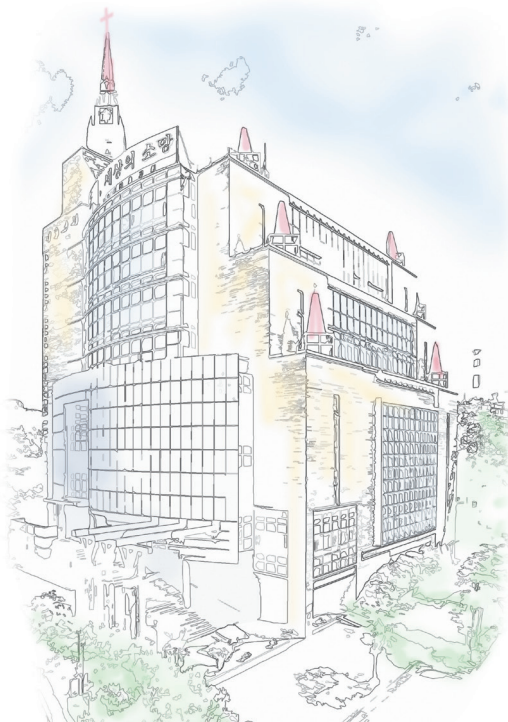
Thirdly, it is a person who procrastinates his calling.

“Another disciple said to him, ‘first let me go and bury my father’ (v. 21).

The core of this word is avoidance because of the work of urgency and priority in the kingdom of God. Even though it is very important that a child respects their parents, it is very much urgent that nothing can substitute for the work of the Gospel and salvation of soul.

After this the Lord appointed seventy two persons for the mission of the Gospel (Luke 10:1). They were fully appointed as a self devoting worker established a priority for the kingdom of heaven.

My beloved Christians,
Which category do we belong to?
Just as the seventy persons appointed by the Lord were completely devoted to the mission of him, as I earnestly hope that you will enjoy all of His blessing in the world and heaven that they enjoyed.



2013 흥해작전, 승전 2일전

지난 6월 6일부터 “와서,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되고 있는 2013흥해작전이 승전까지 앞으로 2일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22일(토) 새벽기도회에 있었던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기도

우리교회 박노철 목사가 은혜로운 새벽강단을 인도하고 있으며 연일 수많은 성도들이 본당을 가득 메우고 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 흥해

흥해작전 마지막 날인 25일은 새벽기도회 후 8층 만나홀에서 승전을 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떡을 떼는 잔치로 모인다.

흥해작전 승전감사예배 - 30일(주일) 찬양예배 시에

흥해작전 7행시와 그림, 산문은 6월 23일(주일) 오후 2시 마감하며 대상 3명(교육국별 1명), 입선 18명(교육국별 6명)을 6월 30일(주일) 흥해작전 승전감사 예배시 시상한다. 또한 승전기념으로 유아부 부

터 고등부까지(7번출석), 청년부(14번출석)는 별도의 상이 주어진다. 6월 30일(주) 찬양예배는 흥해작전 승전 감사예배로 드린다. 또한 25일 승전기념 떡 잔치를 피택장로들이 제공한다.

청년부 요리경연대회

청년부(회장오태경)에서는 6월 29일(토) 오후 5시 서울교회 만나홀에서 흥해작전 승전 기념으로 요리 경연 대회를 준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하여 임원단과 다락방원들과 그리고 교사들이 함께 어울리며 풍성한 교제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청년부 지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청년부 소속 다락방들이 팀을 이루어 10여개 팀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제 30회 전국 오르가니스트 대회

-6월 24일(월) ~ 26일(수) -



우리나라 오르가니스트들의 제전인 제30회 전국 오르가니스트 대회가 서울교회에서 6월 24일 오후 1시에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3일 간에 걸쳐 열린다.

박노철 목사의 설교로 시작되는 오르가니스트 대회는 우리나라 각 대학의 오르간 전공 교수와 대학 강사 및 각 교회에서 봉사하는 오르가니스트들이 대거 참여하여 강의와 워크샵, 마스터 클래스가 열린다. 특히 세계적인 오르간 연주자들의 연주회가 열리는 바, 24일(월) 저녁 7시30분에는 미국 아리조나 대학 교수인 킴벌리 마샬 교수의 연주회가, 25일(화) 저녁 7시30분에는 헝가리의 페스트 리스트 음악원 교수인 라슬로 파쌍 교수의 연주회가 열린다.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저녁에 열리는 오르간 연주회의 입장권은 일만원이며 서울교회의 성도님들에 한해 50% 할인혜택을 준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에 냉난방기 후원

우리교회는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부평역 소재 무료급식소의 준비장소와 장기동 소재 사랑의 빨간 밥차 종합지원 센터 내 주방에 냉난방기를 설치해주시기로 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는 미자립 복지시설과 무료급식 단체와 경로당 등을 지원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로 이번에 우리교회에서 냉난방기를 설치 지원하여주는 부평역과 장기동 소재의 무료급식소는 인천 지역의 독거 노인들과 서울역 노숙인들, 쪽방촌 노인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음식을 만드는 주방이다.

여전도회 연합회 선교대회 개최

-6월 27일(목), 웨스트민스터 홀-

서울강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오는 27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우리교회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제 26회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1부 예배 설교는 우리교회 박노철 목사가 담당하며, 강사는 장승권 목사(권율부대 총성교회 담임)이다.

여전도회 회원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93)

(문 92)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고 했고(삼하 5:5) 이스보셋이 죽기 전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했는데(삼하 2:10)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답) 삼하 5:5에 의하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북왕국의 왕으로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 7년 6개월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역대상 3:4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하 2:10에 의하면 다윗의 경쟁자로 알려졌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후원을 받으면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이후 다윗이 남쪽을 7년 반 다스렸고 북쪽은 이스보셋이 2년간 다스렸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경은 대상 3:4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3년 반을 다스렸다고 번역했으나 아직도 삼하 2:11과 5:5의 7년 6개월이 있는 한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넬이 패잔병을 이끌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한 기간이 약 5년이 걸린 셈입니다. 그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한 후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즉위시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길보아 산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와해된 후에 요단 동쪽을 회복시키고 블레셋을 정복하는 기간이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아브넬은 만하임에 그의 사령부를 설치하고 가지파의 벽지에 이스보셋을 피신케 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고 시체가 전 시되었던 벧산으로부터 블레셋을 정복하기 위해 5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완성되기까지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서야 아브넬은 마하나임에서 열 지파 대표들을 모아놓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보셋의 실지 통치기간은 2년이 된 것입니다. 2년만에 그의 군대장관 바야나와 레갑이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의 배를 칼로 찌르고 목을 베어 다윗에게로 가져갔습니다(삼하 4:5-6). 얼마 후 아브넬은 요압에게 죽었습니다(삼하 3:27).

그러나 다윗은 길보아 전쟁 직후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북을 통일한 나라의 왕이 되기 전 그는 7년 6개월 동안 남 유다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호국의 달 - 6.25 한국전쟁

끝나지 않은 전쟁

대한민국은 1948년 UN결의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정부를 수립하였고,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다.

그러나 그 후 2년이 채 못되어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 일본 치하에서의 36년, 그 고통과 굴욕의 나날들! 끝이 날것 같지 않았던 암울한 일본 강점기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조국은 꿈에 그리던 해방을 맞았으나 불행하게도 남과 북은 각기 다른 이념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동족간의 전쟁이

“ 휴전 60년이 흐른 지금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일어난 것이다. 이 땅엔 비극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고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기까지 전장에서는 북한군과 국군의 공격과 후퇴가 거듭되며 남과 북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사망, 학살, 부상, 납치 실종 되었으며 10여만 명의 아이들이 전쟁고아 되었다. 어디 그 뿐인가. 미국과 영국을 비롯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대치 중인 국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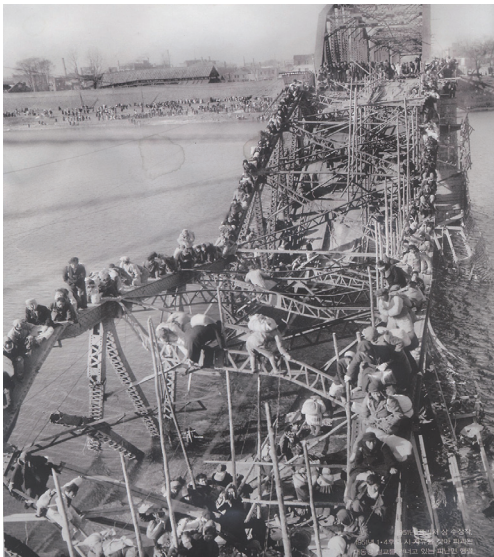
와 애국가를 거부하고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맹목적 종북세력이 이 땅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북주의가 마치 지성의 상징이라도 되는냥, 평화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정작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와 탈북자 보호 문제, 핵문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가증한 사람들이다.

전쟁의 폐허, 다시 소생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야 어찌 쓰레기를 뒤져 배를 채우고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가난한 나라가 60년도 채 되지 않아 세계 중심에 우뚝 서 있겠는가?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상처 위에 기적의 역사를 쓰셨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과 평화는 참으로 고귀한 것이다.

우리는 6.25전쟁이 주는 교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6.25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야겠다.

- 편집부 -



대동강 철교위의 피난민 행렬

한 16개 국가의 젊은이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이들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기꺼이 참전하여 생명을 바쳤다. 지금도 그들 나라에는 6.25전쟁 참전기념비를 세워 당시 희생된 영혼들을 기리고 있는데 정작 장본인인 우리나라의 전쟁의 상흔은 희미해져 가기만 한다.



6.25전쟁이 낳은 전쟁고아

휴전 60년이 흐른 지금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북한은 6.25전쟁이 복침이라고 주장하고 수시로 대남 도발을 하며 적화통일을 위해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기막힌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서 태극기

2013 흥해작전

3대가 함께 건너는 흥해!



김희경 집사 (11교구)

흥해작전은 저희 가정의 영양제이며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할때마다 온가족 3대가 모여 신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직장 and 사회 등에서,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 등 삶 속에서 바쁘게 살다보면.. 출애굽하여 흥해만 건너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축복이 펼쳐지는 것을 모르고 눈앞에 놓인 거친 바다와 애굽 군대를 보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나 내 뜻대로 살며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어 해마다 6월 호국의 달이 되면 흥해작전이라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교체시간을 통해 우리 가족들이 영적으로 잘 깨어 있는지.. 연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여 다시 나침반을 하나님 앞으로 맞출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려 애쓰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려서부터의 신앙훈련은 앞으로 자녀들 앞에 놓일 흥해를 스스로 가를 수 있는 가장 powerful



시부 박인규 장로, 시모 육순자 권사, 남편 박중권 집사, 아들 박민수, 딸 박주원과 함께 새벽을 깨우는 김희경 집사

한 믿음의 유산이 될 것이며 그런 손자, 손녀를 바라보며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해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의 기도와 축복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값비싼 믿음의 뿌리가 되어 그들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비전과 크신 은혜를 주시려고 올해도 흥해작전 특별 새벽기도회에 불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 특별한 시간에 가족 모두와 참석하셔서 보잘 것 없는 우리 인생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여 "기적과 승리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2013 교구별연합특별찬양

하나로 모여 드리는 찬양



윤종덕 집사
(9교구 간사)

누군가 저에게 지난 몇 년간 교구 간사를 맡으며 가장 부담스러웠던 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교구 찬양대회 준비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각 교구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데다 마지막 찬양대회에서 1등을 하여 우리교구 성도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어떤 찬양을 하지?’ ‘랩을 가미한 찬양을 하면 어떨까?’ ‘아니야. 나도 소화를 못하는 랩을 어떻게 ...’

아무리 쥐어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 나의 능력에 한계를 느낄 무렵 너무 감사하게도 교구별 대회가 아닌 교구연합찬양 발표로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역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의 부담은 줄었으나 여러 교구가 모여 연습을 하다보니 지휘자 선정부터 연습시간, 간식, 복장 등 사소한 내용까지 교구마다 의견이 너무 많아 진행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찬양연습을 시작한 뒤에도 “곡이 어렵다” “음이 너무 높다” 심지어 너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휘자와 함께 4주 정도 연습이 진행되면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고 찬양도 아주 훌륭하게 완성 되어갔고 이를 지켜보는 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지난 주엔 찬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구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 찬양드리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제안에 공감하며 연습할 때부터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였고 9,10,12교구의 각 다락방장들은 연습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주 최종 연습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으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악보와 간식이 모자라 일부 성도들은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나의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였습니다. 이런 나의 작은 믿음에도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6월 2일(주)에 찬양 드린 1, 16교구



6월 9일(주)에 찬양 드린 2, 3, 4교구



6월 16일(주)에 찬양 드린 5, 6, 7, 8교구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23일(주) 서울남교회 군선교순회 예배 설교를 한다. 25일(화) 아시아로잔지도자포럼 개회식에 참여한다. 26일(수) 아시아로잔지도자포럼 성경연구강해를 한다. 세이브엔케이 포럼(통일을 대비한 전문가포럼)에서 개회사를 한다. 29일(토)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 허창범, 현순미 선교사: 일본기독교단 국제사랑교회 설립식 및 허창범 담임목사 취임식, 6월 23일(오후3시) 일본 오미야시리유리 유치원
- 취임 : 1교구 최정식 집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학장
- 주간식당봉사 : 이삭선교회(6.23) 도르가전도회(6.30)
- 금주의 식사 : 권영준 집사 손성실 권사 가정, 김문기 집사 서중숙 권사 가정 (지녀 결혼 감사하며)

신앙강좌 1부 수료식

-6월 30일(주), 찬양예배 시-

고영숙, 공진문, 곽숙, 강승용, 구흥환, 김규환, 김명숙, 김명자, 김상태, 김선자, 김신애, 김자경, 김점숙, 김현관, 권오철, 권순덕, 남상경, 노성태, 마은숙, 문가자, 문수자, 박복순, 박희서, 배준길, 백정순, 신종건, 안선광, 오교식, 오민정, 오치열, 윤찬오, 이강인, 이광열, 이순열, 이은상, 이상호, 이신애, 이재순, 이정자, 이태원, 임선철, 임종태, 전영돈, 정옥주, 최명남, 최진, 최화옥, 한종우, 홍창배, 황노전, 황보추자, 홍성숙 (52명)

■ 절전의 생활화 ■

우리나라 원전가동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가운데 올 여름은 특별히 절전의 생활화가 절실하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실내온도는 26도이다. 그러므로 각 가정에서는 물론 교회 각 부서에서도 실내온도가 26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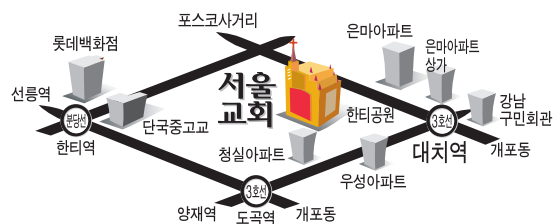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우리 민족의 아픔 6.25 전쟁을 잊지 말고 모든 세대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2. 25일(화)까지 계속되는 홍해작전 특별재해기 도회에 전 교우들이 참석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3. 교구별 특별찬양을 통해서 교구가 사랑으로 연합되고 찬양예배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요예배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I 부 예배	오전 11시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II, III 층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